

지역 소식통



정읍시,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 5월부터 운영

정읍시는 내장산 문화관광 일원에 조성되어 있는 워터파크 음악분수를 5월부터 운영한다.

오는 10일까지 운영되는 음악분수는 평일 3회(19시, 20시, 21시) 주말에는 4회(14시, 17시, 20시, 21시) 공연한다. 야경에는 음악과 영상이 어우러진 하트 분수, 버블분수, 곡사분수 등 14종의 분수를 연출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워터파크 주변에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국민여가캠핑장, 천사하어로즈, 수변레저 체험존, 박물관, 어린이들이 시골 등이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마을 리포터 양성 교육 성료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허남선)는 지난 2일, '마을 리포터 양성과정' 수료식을 열고 모든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마을 리포터 양성과정'은 농촌 마을의 행복한 삶을 공유하고 서로 나누어가는 모습을 전달하여 활기찬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7회차 20시간으로 구성되어 전문적 글쓰기 및 인터뷰 요령 등 마을 리포터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 날 수료식에서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8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그 동안 배움과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교육 이수자들은 마을 리포터 현장 활동가로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소소하고 정겨운 마을의 이야기를 발굴·취재해 마을 소식지로 전달해 줄 계획을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체류형창업지원센터 지역명사 특강 진행 중

고창군 체류형창업지원센터가 귀농귀촌 성공정착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명사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농업학교 교육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신연수 고창군이장단연합회 회장, 최종영 농촌지도자 고창군연합회 회장, 오철환 고창군체육회 회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각 명사들은 고창군 자립과 지역민과의 소통하는 방법 등으로 안정적으로 귀농귀촌 정착하기 위한 애정어린 조언을 전했다.

이번 강연은 귀농귀촌인의 지역민과의 소통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으로도 귀농귀촌 성공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명사들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고창=김석진 기자

# 혁명 가치 새롭게 조명할 터

정읍시,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참가... 9~11일 아르헨티나 등 5개국 6개 혁명도시 참가

2023 동학농민혁명 국제컨퍼런스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정읍시 덕천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세계화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를 가져오고 있다.

올해 주제는 '근대혁명도시들의 기억과 연대:혁명과 사람'이다. 주제는 혁명과 도시이다. 혁명 지도자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취지로 세계 각 도시 혁명 지도자들의 삶과 희생을 이해해, 그들이 꿈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현재의 가치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도시는 주최도시인 정읍을 비롯 아르헨티나의 알타그라시아, 독일의 발하우젠, 아일랜드의 더블린과 코크, 중국의 난징 등 6개 도시다. 남미의 혁명가 체 게바라의 고향인 알타그라시아와 독일농민전쟁의 지도자 토마스 뮌처의 본거지였던 발하우젠은 작년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

새롭게 참가하는 도시는 아일랜드 독립운동의 영웅 마이클 콜린스의 고



향인 코크와 중국의 태평천국운동의 중심지인 난징이다.

알타그라시아와 코크에서는 시장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는 부시장이 방문한다. 독일 발하우젠의 시장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박물관장이 대신 방문한다.

또 고창과 완주, 부안, 김제, 논산, 장성, 장흥 무안 공주, 태안, 보은, 상주 등의 기념사업회 임원급 등 국내 동학농민혁명 도시의 단체들도 다수 참여한다.

정읍시는 첫날인 9일 참가 도시와 연달아 회의를 갖고 상호 간 교류와

연대는 물론 향후 공동사업을 논의한다. 개별회의 후에는 전체 참가 도시와 연석회의를 열어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의 순회 개최 등을 의논할 예정이다.

10일, '1894년 황토현 전투의 재구성: 역사지리학'과 '전봉준의 혁명적 생애와 그의 나라, 남미의 농민혁명과 알타그라시아의 체 게바라' 등을 발표하는 등 국제포럼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코크시립도서관 관장인 데이비드 오브라이언이 '코크시의 마이클 콜린스 기념사업'에 대한 특별발표를 나선다.

포럼에 앞서 각 도시 대표와 발표자들은 '발발, 바람길 - 전봉준군과 동학농민군상'에 대한 화합 포스터를 발표한다.

연화 후에는 이학수 시장이 각 도시와 상호협력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선언문에는 혁명도시들의 연대와 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자매도시 체결, 상호방문 및 연대회의 순회 개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지난 4일 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상하면 온정 나눔터'를 개관했다.

## “화합을 이루는 활력있는 공간”

고창군, '상하면 온정 나눔터' 개관... 면소재지 거점기능 강화

고창군이 지난 4일 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상하면 온정 나눔터'를 개관했다.

개관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했다.

온정나눔터(상하면 상하로58)는 카페, 빨래방, 다목적실 등의 기능을 가진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구성됐다.

앞으로 상하면 소재지의 거점을 강화해 기초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고,

중심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중간지원조직과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더욱 많은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온정 나눔터를 적극 활용해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누리면서 화합을 이루는 활력있는 공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석진 기자

## ‘장대비를 뚫다’... 부안마실축제 성료

개막식 6000여명 참여 · 최고의 마실을 찾아라 2500여명 등 폭우 속 큰 인기

제10회 부안마실축제가 지난 4일 개막해 6일 폐막식을 끝으로 성료된 가운데 연일 수심mm가 넘는 폭우 속에서도 주민과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올 축제는 '할머니의 품 속으로'라는 주제와 '부안여행 마실 FESTA'라는 슬로건으로 8개 분야 39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공연과 캠핑, 체험, 치유, 여행 등 다채롭게 구성됐으며 아간 퍼레이드 '신들의 행차'와 음악을 통해 엄마 아빠가 품었던 꿈과 열정을 되찾아주는 '마마스 앤 파파스 뮤직 페스티벌', 조선 대표 여류사인 이매창의 삶과 시를 조명한 관객 참여형 뮤지컬 '돌날빌' 등 축제 대표 프로그램들도 수천명의 인파가 모여 장사진을 이뤘다.

실제 지난 4일 열린 개막식에는 6000여명의 관광객이 모였으며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최고의 마실을 찾아라'에 2500여명이 참여해 굿은 날씨도 무색하게 했다.

아간 EDM 파티에도 1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세계잡버리를 잡아라'와 '인생마실' 등도 800여명이 체험했다.

놀이마실존에서 열린 '마실운동회'와 '황금마실'을 잡아라, '어린이 물총놀이' 등에도 500여명이 참여한 큰 성공을 이뤘다.

특히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제10회 부안마실축제에는 총 5만여명이 찾았으며 이 기간 동안 부안에는 매일 수심mm의 비가 내리고 3일간의 누적



제10회 부안마실축제 지난 6일 폐막했다. 사진은 마마스 앤 파파스 뮤직 페스티벌 시상식.

강수량이 전북에서 가장 많은 141mm(6일 오전 7시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적은 수치가 아니다.

또 올 부안마실축제에서는 매일 비가 오는 굿은 날씨에도 축제를 찾은 관광객과 주민들은 서로를 위하여 다양한 미담사례를 남겼다.

부안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재희)는 지난 4일 저녁 9시 30분에 진행된 모기장영화관을 찾은 관광객에게 따끈따끈한 감자와 옥수수를 직접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으며 부안읍 관내 사회단체와 환경자립이 자원봉사자들도 축제장 전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했다.

이와 함께 미니바이킹 놀이기구를 활용한 기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

린이 및 관광객들이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했으며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관광객을 위한 우비도 1만 2000여개를 미리 준비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제10회 부안마실축제는 공연과 캠핑, 체험, 치유, 여행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며 "축제가 기간 동안 많은 비로 어려움이 컸지만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더욱 재미있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부안마실축제를 준비하겠다"며 "따뜻한 봄꽃의 향기가 가득한 5월의 봄날에는 항상 부안마실축제를 잊지 마시고 부안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은 지난 5일 오전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모범어린이·아동보육 유망자 초청 기념행사를 열었다.

## ‘어린이가 놀기 좋은 고창’

고창군, 어린이날 행사 성료

심덕섭 고창군수가 '제11회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하고 지역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고창군은 지난 5일 오전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모범어린이·아동보육 유망자 초청 기념행사를 열었다. 표창수 여석이 이어 미술쇼 등이 펼쳐져 어린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끌 수 있는 볼거리를 다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오늘은 어린이

여러분이 마음껏 뛰놀고 즐기는 날'이라며 "이 세상은 커다란 도화지와 같다.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세상은 변할 수 있어, 항상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어린이가 돼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올여름 나들목공원 어린이물놀이대가 개장하고, 유아숲 체험원을 지으며 따뜻한 가정, 깨끗한 환경, 좋은 교육시스템과 복지시설, 그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고창=김석진 기자



제11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6일 부안동초등학교 중앙동산에서 '어린이날 큰 잔치'가 열렸다.

## 부안지역 아이들의 행복 '넘실넘실'

부안군, 어린이날 큰 잔치 개최

제11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6일 부안동초등학교 중앙동산에서 '어린이날 큰 잔치'가 열렸다. 800여명의 어린이들이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19년 이후 어린이날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되면서 4년만에 분주히 축제가 준비되었다.

부안군 기록교련협회(회장 최기훈목사)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어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행사는 5대 마당(놀이·체험·먹거리·공연·운동회마당)으로 이루어졌다. 무대에서 미술과 땀으로 서커스 공연을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에어비즈니스 레크레이션, 명랑운동회를 진행하여 친교와 단합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7종의 아트 및 제작 체험과 놀거리를 제공해 아이들이 각자 개성이 넘치는 활동을 벌였고 각 교실에서 즐겁게 행사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위해 각종 먹거리를 준비해 함께 나누며 훈훈한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 군민 동의 있어야”

고창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 반대 성명서 발표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위원장 조규철 이하 범대위)와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 그리고 지역 민간단체 회원 60여명은 지난 4일 전북도청 광장에서 한빛원전 내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군민 동의 없는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은 지난달 6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한 한빛원전 내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과 관련해 그동안 수 차례 한수원에 고창군민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고창군민의 하나 된 의지를

보이고자 열었다.

조규철 위원장(고창군의원)은 "이번 한수원 결정은 지금까지 국가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수 십년 간 위협을 감수하며 거주하는 지역민들에게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소통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등에 업고 고창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결정한 이번 계획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범대위는 임종훈 위원(고창군의원)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고창군민의 동의 없는 한수원의 핵폐기물 저장 시설 건설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한빛원전 주요 현안 결정 시 고창군민 안전 및 주민 동의권을 보장할 것 △

정부와 전라북도는 한빛원전 현안에 대해 관심과 협조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고창군민과 범대위는 원전이 가동된 후 지난 46년 동안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부지조차 확보되지 않은 현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임시 건식저장시설을 지으면 원전 부지가 영구처분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이와 관련해 지난 제297회 임시회에서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으며 이날 임정호 의장은 군의원들과 함께 회견장을 찾아 인사말을 통해 한빛원전 내 군민 동의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범대위 활동에 동참했다.

/고창=김석진 기자